

인 터 서 브 프렌즈

랜선은 마음을 열 수 있을까?

우리들의 뉴노멀 : 랜선패밀리캠프



Life As Mission, 보내심 받은 자로 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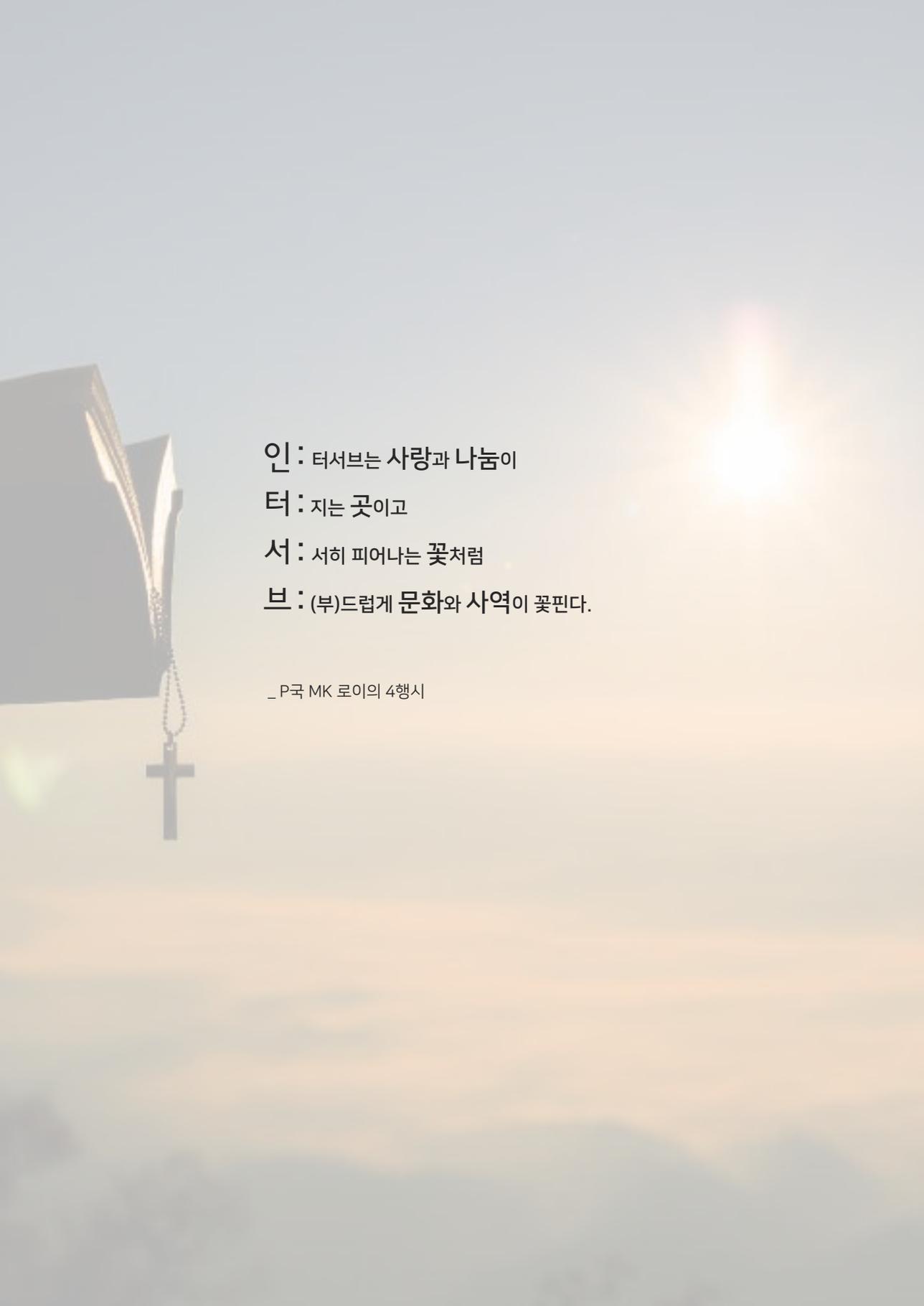
우리 연합함의 고백

_ 인터서브코리아 COVID-19 대응

특집 : 인터서브 필드 레바논

_ 응답하라 레바논에

_ 은혜로 재건될 평화의 땅



인 : 터서브는 사랑과 나눔이
터 : 지는 곳이고
서 : 서히 피어나는 꽃처럼
브 : (부)드럽게 문화와 사역이 꽃핀다.

_ P국 MK 로이의 4행시

contents

Value

번혁의 공동체
Transforming Community

- 04 LAM(Life As Mission) : 보내심 받은 자로 살기 _ 송기태 부대표
- 07 우리 연합함의 고백, 인터서브코리아 COVID -19 대응
_ 김명찬 선교사

People

함께 성장하는 사람들
Interserving People

- 12 랜선은 마음을 열 수 있을까? _ 김형철 매니저
- 20 미션얼 패밀리 _ 캔디데이트

Ministry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All Things To All Peoples

- 17 응답하라 레바논에 _ 조이플 선교사
- 19 은혜로 재건될 평화의 땅, 레바논 _ 야민 선교사
- 22 미셔널 북 _ 하나님과 팬데믹

*Creation Care
인터서브 프렌즈는 친환경적인 용지로 제작되었습니다.

■ 미셔널 Thinking_선교적 교회 컬럼

LAM(Life As Mission): 보내심 받은 자로 살기

▶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는 아직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닐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오천명을 먹이신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주님께 물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요 6:28). 주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요 6:29).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이며 주님으로 믿는 근거는 그 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분의 아들로 믿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사람으로 보내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두 가지 삶의 형태를 견지해야 한다. 한가지는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세상에서 성육신적인 모습으로 사람들과 관계하며 사람들을 섬겨야 한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 혹은 구속하신 유일한 방식이며, 동시에 주님의 제자들이 견지해야 할 삶의 견고한 기초들이다.



▶ 보내심에 대한 믿음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신 첫 말씀은 평강과 보내심이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요 20:21). 평강, 샬롬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에 관한 주제였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만드셨을 때에 세상은 샬롬으로 가득차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였다. 그러나 죄로 얼룩진 세상에 더 이상 샬롬은 없었다. 시기와 경쟁과 다툼과 심지어 서로 죽이는 살인과 전쟁으로 세상에는 샬롬이 거할 자리가 전혀 없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세상에 다시 샬롬이 임하도록 하셨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처음 말씀하신 샬롬은 복음의 메시지요, 샬롬의 복음 안에 있는 제자들을 이제 세상으로 보내는 선교적인 선포였다.

그 샬롬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주님께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하셨던 분부를 그대로 제자들에게 하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일을 이루셨다. 이제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이루려 하신 샬롬을 이루시고, 그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계신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설명할 때 자신이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아서 온 것이라고 말씀하곤 하셨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요 6:38).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도 일상적인 삶에서는 자신의 선택과 자신의 의지대로 사는 사람들처럼,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는 비그리스도인들과 거의 차이가 없이 사는 이유는 바로 자신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의식이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에^{calling} 대해서는 기뻐하고 환영하지만 자신을 세상에 보내셨다는^{sending} 생각은 거의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동안 선교 사역에의 헌신에 대해서도 이렇게 가르쳤다. “가든지 보내든지”^{go or send}. 그렇다면 성도들은 그저 선교사들을 보내는 자로서 후원하며 살면 그것이 최선인가? 그런 삶이 주님께서 제자 공동체를 세상으로 보내신 그 보내심에 합당한 믿음인가? 보내는 자로서의 삶도 필요하고 귀하다.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 자신도 ‘주님으로부터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면서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것은 매우 한계가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의 삶이 선교적인 삶을 지향하는 데는 매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삶은 흔히 선교를 위한 삶(Life For Mission)이 되기 쉽다. 그러나 우리가 지향하고 시작해야 하는 삶의 형태는 ‘삶으로서의 선교’(Life As Mission)이다. 그런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the sentness)라는 사실을 견고히 해야

한다. 그래야 일상적인 삶에서 선교적인 삶^{missional life}를 살아갈 수 있게 된다.

▶ 선교 = 보내심

한자로 번역된 선교^{宣敎}는 기독교를 선전하고 홍보하는 개념이 중심적이다. 그러나 선교의 히브리어는 '실로아흐'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다('실로암'이 여기서 나온 말이다). 그리고 헬라어 번역은 '아포스톨루'로 동일하게 보냈다는 뜻이다. 그리고 사도^{使徒}의 영어 번역이 아포스틀^{apostle}인데 '보냄을 받은 자란 뜻이다. 그리고 이 말이 동일한 의미를 지닌 라틴어 미시오^{missio}로 번역되었고, 영어로는 미션^{mission}으로 번역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선교'라는 말의 원뜻은 '보내심'이다.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정체성을 인식하고 주님께서 부여 해주신 정체성에서 출발해야 한다. 우리는 단지 선교사를 보내고 그들을 후원하는 정도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 우리의 정체성은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표현했듯이 '보내고 보내심을 받은 백성들'인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중에서 타문화권 선교를 위해서 특별히 세움을 받은 자들을 우리는 선교사^{missionary}라고 부른다. 그 뜻도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꼭 타문화권이나 해외로 보내심을 받지 않더라도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보내심을 받는다. 이것이 부활 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새롭게 부여 해주신 제자들의 정체성이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목도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라는 질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요 6:29).

우리의 일상의 삶이, 인터서브의 슬로건처럼, "당신의 삶, 하나님의 선교입니다"의 의미를 가지려면 먼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일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존재라는 정체성을 견고히 해야 한다. 하나님의 선교는 그곳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다. 팬데믹으로 온 세상이 어렵고 어지러운 요즘, 세상은 또다시 기독교로 인해 더 어렵다고 지탄하고 있다. 우리가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고 있거나, 모르고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송기태 파트너 (인터서브 부대표)

우리 연약함의 고백

인터서브코리아 COVID-19 대응

2020년 연초부터 전 세계에 몰아닥친 코로나 바이러스19 팬데믹 상황은 지금까지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시대를 살아가게 만들고 있다. 팬데믹은 현재 진행 중이며 언제 끝날지 예측할 수 없다. 인터서브코리아는 3월 초부터 9월 초 현재까지 COVID-19 대응팀(이하 대응팀)이 구성되어 선교사들의 건강과 안전을 돌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1. 팬데믹 상황 속 선교사 현황

인터서브코리아는 현재 23국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대응팀은 '자가 점검표'를 발송하여 일시 귀국 여부를 본인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었다. 기저질환이 있거나 지역 상황에 따라 일부 선교사들이 일시 귀국하였다. 귀국 선교사 중에는 예정되었던 본국 사역이나 휴가 등 여러가지 복합 사유로 한국에 일시 귀국한 선교사도 다수이다.

현재까지 선교사 및 가족의 감염 상황을 보면, 키르기스스탄에서 코로나 유사 증상을 겪은 두 명의 선교사



외에는 감염 사례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팬데믹은 여전히 진행중이며 많은 국가에서 방역을 위해서 실시해왔던 록다운을 경제적 문제로 해제하기 시작하면서 일부 지역에 갑작스러운 감염 사태가 일어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 선교사들은 비대면 사역 외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며 감염예방에 노력하고 있지만 장기간 코로나 대응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또한 자녀들도 대부분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점점 많은 나라에서 항공편 운항을 시작되어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캄보디아, 터키,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일시 귀국한 선교사들은 대부분 다시 돌아갔다. 아직 항공편 운항이 허락되지 않는 국가에서 일시 귀국한 파트너들은 기약없이 한국에서 체류하고 있다.

2 이 위기를 어떤 가치로 대응하고 있나?

1) 현장팀, 후원자, 파송교회와 긴밀한 소통과 이해를 추구한다.

인터서브는 필드팀과 국내 본부가 함께 안전관리 프로세스를 진행한다. 국내 본부가 필드팀과 긴밀한 소통하며 역할 분담을 통해서 위기관리를 진행하는 것이다. 또한 위기관리 진행사항을 파송교회와 후원자에게 정기적으로 소통한다.

2) 서로 돌보는 공동체성을 추구한다.

진정한 관계는 위기 가운데 형성된다는 말이 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지체의 건강과 안전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해 간다. 정기적으로 실제적으로 신체적/정서적으로 어려운 지체를 돕고 격려한다.

3) 시스템적인 케어 프로세스를 구축한다.

위기관리를 위해서 시스템적인 프로세스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다. 한국 본부는 국내 의료자문 NMA National Medical Adviser 과 위기관리 대응 팀을 구성하고 매뉴얼을 만들었다. 선교지는 필드 대응팀과 매뉴얼이 있다. 국제본부는 선교지와 한국본부와 함께 협력하여 유기적인 케어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다.

한 예로, K국 CMA Countr Medical Adviser 권고에 따르면 50세 이상, 면역결핍증, 만성 폐질환, 암, 자가면역증, 면역억제제를 복용자, 심혈관계질환, 극심한 과체중, 1형 2형 당뇨병, 만성신장질환, 만성간질환, 뇌혈관질환(뇌졸중 유경험자), 흡연자, 혈액질환자, 임산부 등은 고위험군이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선교사는 팬데믹 상황에 따라 일시 귀국 권고를 하고 있다.

3.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1) 우리의 연약함의 고백이다. 주권은 주님이 갖고 계신다.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위기는 지진, 폭풍, 해일, 테러, 전염병 등 여러가지다. 대부분 국지적으로 일어나지만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전 세계적이다. 여타 재난과 위기가 발생했을 때 위기 현장이나 근거리에 가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은 외부의 접근을 허락하지 않는다. 돕고 싶어도 도울 수 없다. 출입국도 자유롭지 않다. 때로는 선교사가 생명에 관련된 긴급한 위기 상황에 놓일 때 외부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고백하게 된다.



2) 이웃의 고통에 돌아본다.

위기는 형제자매를 생각하게 한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계명이다. 우리는 우리의 선교사들을 걱정하면서 함께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선교지의 형제자매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가? 고통에 문제에 대해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 선교사의 안전을 위해서 애쓰는 것 만큼 필드에서 고통 당하는 수많은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가? 질문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3) 비상플랜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준비해야 한다.

갑자기 지역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와서 수많은 환자가 병원에 몰리게 되어서 병원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상황을 대비해서 비상 행동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K국의 사례로 볼 때 위급 상황은 갑자기 발생한다. 비상시 의료전문가의 가이드나 플랜 비상 의약품 및 의료기구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4) 선택은 계속된다. 필드에 남을 것인가? 떠날 것인가?

두 가지의 선택이 놓여있다. 하나는 상황이 어떻든 간에 선교사는 무조건 현장에 남아있겠다는 선택이다. 선교사는 그 땅을 사랑하고 그 나라 국민들을 사랑함으로 현장에서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선한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가치이다. 함께 남아서 현지 분들과 함께 한다는 생각은 존중해야 한다.

또 하나는 선교사의 상황에 따라서 미리 코로나에 대처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일시 귀국하거나 필드를 떠나는 것이다. 대응팀은 미리 점검 리스트를 만들어서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 한국으로 일시 귀국하는 선교사들의 심리적 어려움을 최소화했다. 현지 분들이 어려울 때 자신들이 안전을 위해서 한국으로 일시 귀국한다는 마음의 짐을 해소시켜주려고 노력했다. 일시 귀국을 원하고 그지역에 팬데믹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입국하는 파트너의 마음도 존중해야 한다. 계속되는 팬데믹 상황에서 이 질문을 계속 될 것이다.

4. 앞으로 코로나 팬데믹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와 필요들

계속 진행되는 과정이다. 함께 이웃을 생각하자.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은 진행형이다. 함께 적응하며 살아가야 하는 시대라고 이야기한다. 코로나 시대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수많은 강의와 담론이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내거나 성과를 주장하기 어렵다. 계속해서 코로나 팬데믹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 및 가족, 현지 이웃들, 한국에서 살고 있는 이주민들 모두에게 서로 관심을 가져야한다.

코비드 팬데믹은 단순하게 감염 차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제 필드에 있는 선교사와 가족 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모든 인터서브 공동체도 함께 연관되어 있다.

인터서브 의료인 출신 선교사, 프렌즈들과 협력이다

코비드 팬데믹에서 의료인 출신 선교사와 프렌즈의 역할이 더 필요하다.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에 대한 예방, 치료 등 전문분야에서 의료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프렌즈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육적 필요와 영적 필요에 함께 동참할 수 있다. 처음부터 크고 위대한 목표 설정이 필요하지 않다. 시작은 “마스크 한 장” 나누기이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종식되지 않는 한 많은 지역에서 작은 도움을 필요로 한다.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과 함께 사랑의 손길을 나눈다면 그 위에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다.

우리의 삶과 사역 모두 과정이 중요하다. 이번 코로나 팬데믹 상황도 과정의 연속일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는 우리가 지닌 모든 사고의 지평을 흔들고 있다. 내가 알고 있던 삶의 방식,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삶이 이제는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 코로나 팬데믹은 심리적, 육체적, 사역적, 영적 등 여러영역이 함께 포함되는 복합적 이슈이다.

각 분야에 있는 프렌즈의 작은 관심과 협력을 통해서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이길 위에 함께 한다는 마음을 공유할 것이다. 

김명찬 선교사

재우야, 같이 걷자!

在友: (있을재, 벗우) 곁에 있는 친구

“재우야 같이 걷자!” 선교사님들의 실손 보험과 국민 연금 가입을 위한 모금 프로젝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의 건강과 미래는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것이기에,
선교사님들의 삶에서 실손 보험과 국민연금은 우선수위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인터서브가 대신해서 그분들이 말하고 표현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던
“오늘”의 슬픔과 “내일”의 불안함을 이야기합니다.

5명의 친구들이 모이면, 한 선교사의 **오늘**이 행복해지고,
5명의 친구들이 모이면, 한 선교사의 **내일**이 든든해집니다.
이 슬픔과 불안함의 여정이 더 길어지지 않도록 "재우"가 되어 손을 내밀어 주세요!

후원하기

아래 QR코드를 스캔하면, 바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을 같이 걷기 (실손보험)



내일을 같이 걷기 (국민 연금)

재우야같이 걷자! 프로젝트가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방문해주세요!

<http://interserve.kr/walkalong/>

☐ 인터서브 프렌즈를 만나다

랜선은 마음을 열수 있을까?

우리들의 뉴노멀: 랜선패밀리캠프



패밀리캠프는 1년에 한 번 선교사와 프렌즈들이 함께 모여 인터서브의 가치와 공동체성을 확인하며,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귀한 만남의 시간입니다. 각자가 머무는 곳과 역할은 다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맡아 일하는 일꾼으로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격려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올해는 인터서브코리아 30주년을 기념하는 캠프가 진행될 예정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캠프가 취소되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모이는 가치를 포기할 수 없었기에 온라인으로 모이는 랜선패밀리캠프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랜선패밀리캠프를 진행하면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함께함'이었습니다. 단순히 화상으로 서로 얼굴을 보는 것만이 아니라 기존 캠프와 동일하게 선교사, MK, 프렌즈 모두가 참여하고 있다는 현장의 느낌을 재현하고 싶었습니다. 이를 위해 파트너와 프렌즈들의 모임 뿐 아니라 MK 방을 연령별로 따로 개설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패밀리패키지 박스를 준비하여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같은 것을 즐기며, 함께 식사하고 있다는 마음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인터서브 랜선 패밀리 캠프 2020.08.29



프로그램은 크게 예배와 나눔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여성 선교사들의 뜨거운 찬양 인도로 시작한 예배는 말씀 묵상과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길을 내주었습니다. 이어진 그룹 셰어링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고 대화하며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장에서의 삶과 사역 그리고 코로나 이후의 변화와 염려들을 나누며, 가법지만 마음을 담아 서로를 보듬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MK들은 연령별 그룹을 형성하여 골든벨, 레크리에이션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친구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집중력을 잃지 않을까? 정해진 시간동안 프로그램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것은 걱정이었을 뿐,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해맑게 웃는 아이들을 보면서 감사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즐겁게 참여하는 아이들의 목소리는 이번 캠프에서 가장 큰 기쁨 중 하나였습니다.



현장에서 진행되었던 찬양의 뜨거움이 매끄럽게 전달되지 못하고, 사람들이 동시에 접속하다 보니 발생하는 기술적인 문제들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캠프미션을 완료했다며 올려주는 사진들 속에 개구쟁이 같은 웃음들, 단톡방을 통해 오가는 따뜻한 대화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온라인으로 처음 진행하여 부족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80명의 파트너, 프렌즈, MK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이번 랜선패밀리캠프를 완성 시켜주었습니다. 마음이 있다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왜 우리가 함께 모여야 하는가를 깨닫게 해준 시간이었습니다. 🎉

김형철 매니저





랜선 패밀리 캠프 리뷰

부산스럽다.’ 랜선 패밀리 캠프 행사장의 첫 인상이다. 마음이 어려워 ‘그냥 조용히 나가 버릴까?’ 갈등하는 동안에도 여전히 찬양 팀 튜닝하고 도착한 파트너들의 인사 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들려온다. 시끄럽게 느껴진다.

캠프 며칠 전, 본부에서 만든 아이디어가 속속로 배달되었다. 아! 드디어 행사가 임박했구나. 미국서 귀국한 딸 아이도 행사를 은근히 기대하는 눈치다. 함께 보내온 건빵 한 봉지는 옆 집 선교사에게로 갔다. 맞아 자랑이다.

온라인 행사장에 입장했는데 여전히 어색하다. 먼저 들어와 있던 다른 가족 들은 서로 인사 하느라 바쁘다. 행사장은 여전히 왁자지껄이다. 조금씩 적응이 되어간다. 파트너 가족들이 모두 앞에 있는 것만 빼고는 다른 모임과 똑 같다. 이사장님이 멀리 보이고 박 장로님도 오셨다. 그런데 이분들 모두 인사말 하면 시간 걸리겠다는 생각을 순간 한다. 대표는 언제 인사를 하지?

별말없이 예배가 시작된다. 대형 리조트에서 하는 것 과 또 다른 느낌의 모임이다. 어느새 랜선 패밀리 캠프의 현장은 파트너와 자녀들끼리 섞여버렸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인데 재미있다. 가족이 아니면 나누지 못 할 이야기들을 짧은 시간 깊이 있게 나눈다. 이런 모임이 가능 하다니 우리 파트너들이 특별한가보다. 30주년 행사가 순간 끝나버렸다. 너무 아쉽다.

딸 아이가 너무 좋아한다. 나도 좋다. 우리 파트너들이 좋다. 인터서브가 좋다. 예수님이 좋다. 

토마스 선교사

만나면 좋~은 친구~! 가족과 공동체는 자주 만나야 함을 생각했습니다. 만날수록 그 자체로 반갑고 기쁘고 힘이 되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아는 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반갑고 좋았습니다.

마스크 착용하고, 눈만 내놓고, 거리두고 대면으로 진행하는 패밀리 캠프였다면, 일본에 파송된 선교사 가정과 편안하게 교제할 기회가 있었을까요? 거리의 제약 없이 글로벌하고 편안하게 만날 수 있었던 것도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성경본문에서, 박대훈 파트너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은 공화를 원하신다는 것을 마음 속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일빵빵 전투식량으로, 보내주신 기프티폰, 그리고 이사장님이 선물해 주신 통닭으로 가족이 함께 웃을 수 있었습니다. 웃음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랜선 패밀리 캠프는 모든 순서가 물 흐르듯 진행되었는데, 본부 사무실 진행팀들의 많은 숨은 노력과 수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마스크 벗고 대면하여 함께 만날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노은 선교사

코로나로 대모임들이 불가능해지면서, 인터서브 30주년 캠프가 취소되어 참 아쉬웠던 차에 랜선 패밀리 캠프로 선교사들을 만나게 되어 마음이 기쁘고 흥분되었습니다. 이번 캠프에서 찬양 인도를 부탁받고

우리 아줌마 선교사들로 찬양팀이 꾸려 마음에 소원을 담은 곡들을 선정했습니다.

본 웨퍼가 감옥에서 사형 당하기전 마지막으로 쓴 '선한능력으로'의 가사처럼 고백을 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평화를 누리고 함께 걸어가며 지나간 허물의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우리의 영혼을 짓눌러
도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고 하루하루가 늘 새롭다.

그동안 궁금했던 화면 가득 들어찬 얼굴들과 목소리를 들으며 찬양의 시작과 함께 진한 감동이 우리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했습니다. 자녀들도 모두 기뻐했고 선물로 받은 비상식료품박스 안의 여러 아끼자기한 사람들을 나누며 또한 펼쳐 보이며 그렇게 카톡방도 함께 기쁜 메세지들로 가득 찼습니다.

좀더 시간이 있었더라면 그동안 힘들었던, 기뻐던 이야기 또 코로나 정국을 어떻게 헤쳐 나가고 있는지, 얼마나 좌절하였는지, 어떻게 일어섰는지 등의 이야기를 더 나눌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움이 남습니다. 우리들은 흠어져 있을 때는 서로 거리가 먼 것 같이 느껴지지만 모이게 되면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하는 하나님께서 모아 주신 인터서브 패밀리이므로 더욱 적극적인 랜선 만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랜선 캠프를 위해 수고하신 분들께 진심 감사드립니다. 

이해정 선교사

인: 인도가고
터: 터키가고
서: 서아시아 가고
브: 브라질을 갈거다.

은찬

인: 인터서브는 마음을
터: 터치하고
서: 서비스로
브: 브라더처럼 대한다.

소윤

MK들의 4행시

인: 인도로도
터: 터키로도
서: 서커스처럼 재밌게
브: 브라이브(vibe)를 갖고
여행을 떠나볼깁?

주희


미션얼 Family

김중도, 박예경 (빛, 별)

선교사 가정

안녕하세요.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 된 사랑하는 인터서브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터서브 공동체에 속하게 된 별빛 가족입니다. 소개를 하고 있는 지금도 '지금 여기가 어디지?',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하면서 긴가민가 합니다.

저희 가정은 2018년 비자발적 철수로 중국을 떠날 때까지 15년간 교회 개척 사역과 국제 학교 한국 유학 청소년 사역에 협력하며, 많은 지하 교회들이 세워 지는 것과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추수의 한 정점에서 보내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역의 열매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사역의 방향과 가정 그리고 건강 등에 있어서 여러 재 조정이 필요했는데 현지에서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비자발적 철수로 한국에 나온 후에야 계속 있었다면 완전히 고갈될 뻔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있을 수 있는 이유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저희 가정을 붙들어주셨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저희 가정은 한국에서의 2년 동안 안식 시간과 GMTCC 훈련, MII 훈련을 마치고 이제 다시 인터서브 선교사로 새로운 필드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아직 라오스가 될지 한국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본부 분들과 소수의 파트너분들 이외에는 아직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주님 허락하시면 언젠가 모두 얼굴로 만나 뵙고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김로이, 조이 (신, 희)

선교사 가정

안녕하세요. 인터서브의 새 가족이 된 로이와 조이입니다. 저희는 사랑의 교회 대학부에서 예배사역을 섬기는 중에 만났고, 주님의 섭리 안에 목회자 가정으로 세움 받았습니다. 대학시절 조이는 캠퍼스 선교 단체 훈련을 받아 사역했고, 사랑의 교회 대학부를 섬기면서 일찍이 열방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로이는 10년 동안 목회자로 세움 받아 목양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앞으로 로이는 목회 경험을 바탕으로 기독교인 대상의 목양과 제자훈련 사역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조이는 대학에서 공부한 음악학(작곡-이론)과 교육학, 뮤지컬 공연작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젊은이 대상의 전문 교육 사역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 첫째 아들 김신과 초등학교 1학년 둘째 딸 김희와 함께 보내실 그 땅에 믿음과 소망의 기쁨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 가정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 가정은 현재 보내실 땅과 파송 교회를 놓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남은 목회사역을 은혜 중에 마무리하고, 21년 GMTC와 MTI를 시작으로 구체적인 준비에 들어갑니다. 새롭고 낮은 길,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기에 기쁨과 기대로 내딛습니다. 저희를 가족으로 환영해 주신 인터서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사라박 선교사

안녕하세요.

2020년 하반기 인터서브 가족이 된 사라박 선교사입니다.

예수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후 교회 안에서 예배, 기도 등의 기본적인 신앙훈련을 받으며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교사, 성가대 등 여러 봉사도 하며 청년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 후 평신도 자비량 선교단체인 BBB (Business Bible Belt)라는 직장인 성경공부 모임에 연결되면서 교회 중심의 종교생활에서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으로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15여 년 동안 직장 내에서 전도하고 양육하며 제자 삼는 삶을 살면서 인생과 신앙의 황금기를 보냈습니다. 이후 하나님은 언어와 문화가 다른 환경으로 그 지경을 확장해 주셨고 지난 7년 동안 중앙아시아의 민족들을 품고 기도하였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이 개발시켜 주신 가르치는 은사를 사용하여 중앙아시아 M국과 U국의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며 학생들과 개인적인 삶을 나눴습니다.

제자화 사역을 통한 현지인 내부자 사역에 대한 도전과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이들을 섬기고 싶은 마음의 동기가 있었고 혼자 사역을 하다 보니 단체와 연합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단체를 찾기 위해 2019년 8월 국내로 들어왔고 2019년 하반기 GMIC 경력선교사 훈련을 받으며 지난 사역들에 대한 성찰과 평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저는 중앙아시아 U국의 무슬림들에게 평범한 삶의 모습으로 다가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전달하는 통로로서 두 번째 사역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사역을 인터서브와 함께 할 수 있어 감사드리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동역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

Scott, Joyce (Ernie, Priscilla)

선교사 가정

안녕하세요. Scott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치과의사로서, Joyce는 성가대 지휘자로서 30년 넘게 살아왔습니다. 아들 Ernie와 딸 Priscilla가 있으며, Scott의 어머니가 미국에서 살고 계십니다. 이들은 결혼하여 며느리 Linda와의 사이에 Noa와 Jordan의 두 아이가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에 접어들 무렵, 주님께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반응하였고, 2013년에 Good Stewards Church(한청지기교회)의 파송을 받고 얼마간의 훈련을 받은 후에, 단기 선교 때 사랑에 빠진 K 국에 정착하였습니다.

우리가 처음 자리 잡은 곳은 K-city로서 그곳의 현지인 사역자들과 즐겁게 기도의 집을 지었습니다. 교회의 청년들은 아침에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오후에 교회에 와서 기도의 집을 짓는 일을 도왔고, 저녁에는 홈 그룹으로 모여서 공부하는 정말 아름다운 청년들이었습니다.

Scott은 B-city의 한 대학에서 간호과학생을 가르치게 되면서 B-city로 이사를 했습니다. 2016년에 Scott에게 신학을 공부할 마음을 주셔서 Scott은 2017년부터 서울에 와서 신학을 공부하였습니다. Joyce는 B-city에 남아서 가정사역과 찬양사역을 하다가 2019년 한국에 와서 유방암 진단을 받고 수술 후에 잘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필드로 돌아갈 때는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인터서브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허락해 주셔서 함께 동역하게 되니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미국 여권 소지자를 향한 K 국의 문이 열리면 필드로 돌아가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Praise the LORD! 續


 인터서브 필드

응답하라 레바논에!

시리아 난민 사역 속에 묻힌 레바논의 아픔

Libanon



레바논은 대한민국 경기도 크기의 작은 면적에 인구가 600만여명에 불과한 소국이지만 그 지정학적 위치나 국제관계 속에서의 중요도는 생각보다 매우 큰 나라다. 여러 가지 면에서 여타 아랍 국가들과 다른 점이 많다. 첫번째 레바논의 국교는 이슬람이 아니다. 기독교와 이슬람 각각의 여러 종파들이 공존하며 권력을 나눠 갖는 종교연합국가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복음전도가 비교적 자유로운 점이다. 종교간 긴장 요소로 늘 주의해야 하지만 전도가 불법인 것은 아니다. 우수한 신학교가 있으며 인근 중동 젊은이들이 신학 교육을 받으러 많이 온다. 또 다른 점은, 기독교 비율이 40%에 이른다. 타 중동 국가들보다 월등히 높다. 다만, 레바논의 기독교는 주로 가톨릭 계열의 마론파 기독교를 말하며, 이외 정교회, 가톨릭 등이 포함된다. 우리와 유사한 장로교, 침례교 같은 복음주의는 불과 약 2만 명 이하로 추산한다.

베이루트를 '중동의 파리'라 부르는 것은 단순한 미적인 수사가 아니다. 중동의 어느 도시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서구화된 분위기, 파티와 클럽, 아랍어보다 통용되는 불어와 영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강세 등이 뚜렷하다. 베이루트에 거주하다 보면 아랍 국가에 와 있는 느낌이 별로 들지 않을 때가 많다. 자유의 가치를 생명처럼 여기는 프랑스의 식민지 지배를 받은 경험 때문인지 대개 이슬람 국가에서 보이는 종교적 억압이나 규제가 공공 영역에서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 삶이 넉넉한 젊은이들은 아랍인으로 규정되는 것을 매우 싫어하며 과거 지중해 패권을 장악한 페니키안의 후손으로 불리길 더 좋아한다.

오랜 내전의 역사 속에서도 잡초 같이 끈질긴 면이 있고 흥도 많은 민족이다. 얼마 전 베이루트 항구에서 큰 폭발 참사가 일어나 시내가 초토화되었을 때 사람들은 분노와 울분을 쏟아내면서도 곧바로 도시 복구에 수많



은 자원봉사자로 거대한 행렬을 이루었다. 침통함 속에서도 자원봉사 부스를 중심으로 왁자지껄한 웃음이 끊이지 않고 서로를 즐겁게 독려하는 모습을 쉽게 목격할 수 있었다.

비록 중동 국가들 중에서 오일이 나오지 않는 비산 유국이지만, 사람들만 보자면 재능과 잠재력이 많아 얼마든지 발전 가능성이 있는 나라이다. 그러나 발목을 잡고 있는 요인이 있는데 그것은 레바논 특유의 종파주의 정치체제이다. 현재 레바논을 심각한 경제 위기로 몰아넣고 국가 경제를 파산 위기에 이르게 한 주범이 종파주의로부터 비롯된 부정부패이기 때문이다. 레바논은 타 중동 국가에 비해 일견 민주주의적 형식을 잘 갖춘 정부 체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그 내면은 나라의 장래가 걱정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종파주의 정치체제는 레바논 역사의 어쩔 수 없는 산물이다. 1944년 프랑스로부터 독립 당시, 이미 종교적 구성은 마론파 기독교와 이슬람으로 혼재된 상황이었다. 유튜브에 어느 레바논 출신 여성이 주장하길, 기독교 국가였던 레바논이 이슬람화 한 것은 무슬림 난민의 유입 때문이었다고 하는데 이는 역사적으로 틀린 주장이다. 레바논은 원래 기독교 국가였던 적이 없다. 독립된 국가의 헤게모니를 누가 쥐느냐에 대한

긴장 요소가 늘 상존했다. 다만 197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종교간 내전은 인근 국가에서 들어온 팔레스타인 난민이 영향이 컸다.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와 그를 지원하는 이슬람 국가들, 그리고 기독교민병대 팔랑헤Phalange를 지원하는 이스라엘 간의 복잡하게 얽힌 내전은 레바논 땅에 수많은 파괴와 희생을 낳았다.

15년동안 지속된 내전은 1990년에야 종식되었다. 내전 당사자 간의 협상이 사우디아라비아 타이프Taif에서 이뤄졌고 이때 타이프 협정Taif accord이 체결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 권력을 종교에 따라 나눠 갖게 되었는데, 대통령은 마론파 기독교에서, 총리는 수니파 이슬람에서, 의회 의장은 시아파 이슬람에서 고정 선출하기로 했다. 또 의회 128석의 의석은 기독교 종파들에 64석, 이슬람 종파들에 64석씩 할당되었다. 이에 따라 각 종교에서 세분화된 18개 종파가 그 교세에 따라 나눠 갖게 되었다. 현대 레바논 정치는 이 18개 종파의 절충과 권력 분점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 1990년 이후 레바논 땅에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 속에서 30년이 흘렀다. 그동안 평화와 함께 구축된 종파주의 정치체제는 부정과 부패를 불러왔다. 이미 국가권력과 의회 의석이 고정 할당



되어 있으므로 치열한 선거나 정책 경쟁의 의미가 없다. 정치인이 되려면 이 종파 중 하나의 신념을 고백하며 줄서기 하면 되는 것이다. 공무원조차 임용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실력보다 연줄이다. 소수의 기득권 엘리트들은 사회의 기반시설이 여전히 낙후한데도 국가의 금융, 통신, 수도, 전기 등 상당한 부를 장악하였다. 이는 서민들의 주머니를 늘 가볍게 하는 요인이다.

나라 경제가 어려워지고 세수는 늘지 않으니 교육지책을 많이 쓰는데, 작년 10월에 정부가 발표한 왓츠앱 보이스콜에 대한 어이없는 세금 정책도 이의 일환이었다. 오래된 경제 위기로 달러 대비 레바논 파운드(LBP) 가치가 80% 이상 하락했다. 똑같은 월급을 받아도 이제 살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아우성이다. 물가는 40%까지 올랐다. 수많은 사람들이 중산층에서 탈락하고 인구 50%까지 빈곤선 이하로 내려가고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베이루트 내 난민 밀집지역에서 허가증 없이 영업을 하는 시리아인 가게들을 경찰이 불시에 단속하여 바로 철거하는 일이 있었다. 그런데, 울고불고 하는 그 난민 옆에서 함께 항의하는 사람은 그 시리아인 가게로 말미암아 그나마 싼 값에 먹을 걸 사 먹는 레바논 서민들이었다. 많은 레바논 사람의 처지가 난민의 처지와 별다르지 않은 경우가 늘어난다. 물론 여전히 많은 레바논 사람들은 난민의 존재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며 차별하는 경우가 많다.

국민들은 부정부패에 그동안 참고 참았던 분노를 작년 10월 17일을 기점으로 혁명 구호로 터뜨렸고 연일 대대적인 시위를 이끌었다. 국민들도 정치인들도 더 이상 구시대 산물인 종파주의에 나라의 장래를 맡길 수 없다는 데 동의한다. 이제는 종파를 대표하는 자들이 아니라 각 분야의 전문적 관료로 구성된 세속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누구도 이 기존 체제를 쉽게 흔들지 못하고 있다. 레바논 사람들에게 심겨진 내전의 트라우마 때문이다. 종파주의를 극복하지는 것은 각 종파 간의 기득권을 내려놓자는 것인데 내전을 경험한 레바논 사람들로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 땅에 다시는 참화를 겪기 싫어 평소 서로를 내전이란 단어를 극도로 조심스럽게 사용한다. 종파주의의 급격한 해체는 내전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딜레마가 되는 것이다.

국내적 요인만 해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대한민국도 통일을 원한다고 남한과 북한만 악수하면 바로 이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친이스라엘 성향의 일부 기독교, 사우디아라비아를 등에 업은 수니파 이슬람, 이란과 시리아와 연계된 시아파 이슬람 등 사방이 엮혀 있어 국민들이 원한다고 당장 종파주의가 극복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매우 복잡한 국제 관계가 고착되어 있다.

레바논을 사역지로 정하고 들어오는 주된 이유는 시리아 난민사역 때문일 것이다. 한국인 사역자의 대부분도 주로 시리아 난민사역을 위해 들어왔다. 또 시니어 선교사들 중에도 인근 요르단과 시리아 등에서 이미 시리아인 사역을 하다 온 분들이 상당수다. 대개 난민 캠프촌이 몰려 있는 레바논 동쪽 베카 지역이 주 사역 무대이다. 이곳에서 난민을 위한 사역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구호, NGO연계사역, 의료지원, 방문 진료, 난민어린이학교 운영, 가정심방, 복음전도, 제자양육, 기초직업훈련, 교육지원, 취미문화교실 등등. 사실 난민을 위한 사역의 유형은 제한이 없다. 난민에게 필요한 것은 전인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역이 필요할 것인지 보다 그들과 진심을 나누고 깊이 있는 소통이 가능한 언어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

반면에 레바논 사람들과 이 나라 자체에 대한 관심

과 헌신을 가지고 들어온 사역자는 흔치 않다. 개인적인 바람은, 시리아 난민사역은 여전히 중요하고 여전히 많은 손길이 필요하지만, 이곳 레바논 교회에 깊이 들어가 정착하고, 현지 교회 성도들과 신앙을 나누며, 이들과 함께 복음전도에 나설 수 있도록 선교적으로 양육하는 사역을 준비하며 오는 사역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를 위해선 레바논 역사와 사회, 종교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는 필수이겠다. 물론 이곳에 오게 되면 레바논 시리아 구분 없이 사역을 하게 된다. 아랍어 또한 인터넷에 자료가 차고 넘치므로 기초 수준은 국내에서 미리 충분히 준비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코로나 시대에 이곳 아랍어학원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다.

시리아 내전 발발 이전부터 시리아를 품고 달려왔으나 이제는 갈 수 없는 땅이 되었다. 선택지는 바로 옆 레바논. 언젠가 시리아 문이 열릴 것이라 기대하며 이곳에 정착하였다. 그러다 레바논 사람의 궁핍함과 울부짖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레바논 땅의 의미를 시리아 난민사역을 위해 하나님이 잠시 빌려주신 무대 로만 간주할 수는 없었다. 시리아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 관계를 맺고 있는 레바논 역사와 사회를 더 깊이 이해하고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레바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이 가운데 시리아 난민을 위시해 다양한 출신의 난민들을 더 깊이 돕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열릴 것이라 믿는다. 

레바논을 위해 기도하기

1. 부정부패로 쌓아 올린 레바논의 종파주의가 해체되게 하소서.
2.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긴 내전이 반복되지 않고, 국가를 지혜롭게 운영할 수 있는 리더 그룹이 새롭게 세워지게 하소서.
3. 레바논 교회에 깊이 들어가 정착하고, 현지 교회 성도들과 신앙을 나누며, 선교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사역자들을 보내 주소서.

파트너 스토리

은혜로 재건될 평화의 땅, 레바논

베이루트 항구 폭발 사고 그 후,

아민 선교사



8월 4일 베이루트 항구 폭발 사고로 현재까지 공식 집계된 사망자는 190명, 부상자 6,500명, 실종자는 7명입니다. 하지만 불법체류 중인 난민, 노동자들은 이 집계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 피해는 더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로 며칠 전 실종자 명단에 없는 난민 아이가 건물 잔해에 깔려 있는 것을 칠레 구조대가 발견했다는 뉴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 리서치 차원에서 다시 가본 베이루트 항구는 더 이상 바라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아름다웠던 곳이 아니라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1주일 후 외교부는 의료체계 마비와 대규모 시위를 예상하여 베이루트시의 여행경보를 '철수권고' 수준의 3단계 적색경보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실제로 폭발로 인해 베이루트 주요 병원들은 큰 피해를 입었고, 늘어나는 코로나 확진자로 이미 부족했던 병실에 폭발로 인한 부상자들까지 쏟아져 들어와 병원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가 만연한 정부를 향해 대규모 시위가 이어지면서 올해 1월 출범한 하산 디아브 총리 내각은 사퇴하였고, 현재 차기 정부 구성을 위한 과도기에 있습니다. 또한, 헤즈볼라와 이스라엘간의 갈등, 순니파와 시아파간의 갈등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무슬림 종파간 충돌로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경제난이 지속되자 작년 10월부터 반정부 시위가 이어졌고, 이어서 모라토리움이 선언(1조 4000억원)되었습니다. 올해 초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와 록다운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인구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했습니다. 이곳의 공식 환율은 1\$=1,507LBP이지만 블랙마켓에서는 현재 1\$=7,000LBP에 거래됩니다. 현지 화폐 가치가 폭락하였고, 거의 모든 분야에서 수입에 의존하는데 80% 이상의 물자가 들어오는 레바논 항구의 폭발로 어려움은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고 이후 코로나 확진자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일 확진자가 600명을 넘었고 확산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9월 5일까지 총 확진자 : 19,490명). 폭발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세계 곳곳에서 도움을 주고 있지만 생필품이나 의약품을 나눠주기 위해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는 일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게 보이고 지혜롭게 방법을 찾아갈 필요성을 느낍니다. 저 역시도 현지 NGO의 이동진료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 살 돈이 없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의약품을 받으러 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고 후 몇몇 지역을 리서치 해보니 빈부격차가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사고 직후 레바논을 떠났거나 다른 지역으로 피했다가 도로가 정리되자 일꾼들을 고용해 부서진 집을 수리하였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난하고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은 피해 입은 곳을 수리하지도 못한 채 잔해 속에서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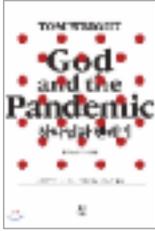
어떻게 이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생필품, 의약품이 가장 시급하긴 합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구호와 지원이 현지에서 효과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이곳에서는 어떤 일이든 밀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필요한 일은 해야겠지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찾아가 이야기를 들어주고 필요를 채워주는 일은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하신 일이고, 또 이곳에서 해야 할 가장 필요한 일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레바논을 위해 기도하고 필요한 도움을 주고 있어 감사합니다. 아마도 피해 입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소한 1번 이상 생필품이나 의약품 등을 지원받았을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도움을 받지 못했거나 지속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찾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저는 폭발 피해를 입은 가정을 돕기 위해 현지 교회 아웃리치 팀과 함께 피해 가정을 방문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필요를 조사하고 있는데 실제로 어려운 가정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번 사고가 아니더라도 도움이 필요한데, 폭발로 인한 피해까지 더해져 정말 살기가 어렵게 되었다며 눈물 흘리는 이들을 바라보는 일은 정말 안타깝고 마음 아픕니다. 그래도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하는 일은 참으로 중요하고 관계가 시작되는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리서치를 마치면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이 가장 좋을지 팀이 함께 고민하고, 방문했던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때 재방문하여 이야기도 나누고 준비한 작은 도움도 전달합니다. 그러다보면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가정과 연결되기도 합니다. 저는 이것이 현지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레바논은 정부의 무능과 부정부패, 현지 화폐의 가치 하락, 물가 상승, 코로나 바이러스, 셋다운, 폭발 참사가 이어지면서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레바논을 위해, 무엇보다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고 있는 이곳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중동에서 그나마 유일하게 크리스천과 무슬림이 가까스로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이곳이 꼭 주님의 은혜로 재건되어서 세상에 평화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할 날이 오기를 꿈꿔 봅니다. **www.interserve.kr**


 미셔널 BOOK


하나님과 팬데믹

톰 라이트 지음, 이지혜 옮김 (2020, 비아토르)

‘왜’와 ‘무엇’ 사이에서 :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현상의 원인 분석에 대한 접근보다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더 방점을 두어야 한다.

구약 성경 읽기 : 율기는 지금의 팬데믹을 해석하고 반응하는 좋은 스토리이다. 율을 위로하기 모인 친구들은 재앙의 원인에 대해 계속 반복하며 이야기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율의 재앙의 원인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으신다. 다만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는 내용을 제공하신다. 라이트는 율기의 특징이 재앙에 대한 ‘미해결’이라고 결론짓는다.

예수님과 복음서 : 라이트는 현재의 팬데믹 상황에 대한 해석도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단언한다. 예수님은 마지막 선지자였고 그보다 더 큰 시대의 표적은 더이상 없기 때문이다. “십자가는 세상의 모든 고통과 공포를 쌓아 처리하는 곳이다. 부활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와 그분의 주권적인 통치의 출발이다...복음 이야기를 살피지 않고 지진이나 쓰나미, 전염병 등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지’에 대한 결론으로 비약하려는 것은, 예수님을 배제한 채 하나님에 대해 무언가를 추론하려는 기초적인 신학적 실수를 범하는 것이다”(p.49).

신약 성경 읽기 : 신약의 책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관점에서 세상의 사건을 ‘해석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예시해 주는 스토리들의 묶음이다. 사도행전에서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안디옥에 와서 온 세계가 큰 기근이 들 것이라는 예언을 했다(행 11:28). 그 때에 안디옥 교회가 한 일은, 왜 세상에 큰 기근이 드는 것일까? 무엇이 신을 노하게 했는가 하는 질문이 아니었다. 그들은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작정하고 이를 실행했다. 즉 그들의 초점은 “이런 일이 생기면 누가 가장

위험에 처하는가? 그들을 돕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나? 누구를 보내야 할까?”하는 것들이었다(p.66).

라이트는 로마서 22-27의 ‘창조 세계의 신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고통받는 세상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부르신다고 주장한다. 피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신음에 참여함으로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참여하는 방식을 배우게 될 것이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 : 라이트는 팬데믹 상황에서도 주기도문이 우리의 표준이라고 역설한다.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지금은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야 할 때이다. “교회의 첫 부르심,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부르심은 우는 사람 사이에 겸허히 자리 잡는 것이다”(p. 99).

라이트는 팬데믹 상황에서 기독교가 ‘공공신앙’을 다시 생각해 볼 때라고 제안한다. “지난 3백년 동안 서양 세계는 ‘종교’를 개인적인 문제, ‘사람들이 혼자 하는 일’로 간주했다. 대중의 사고에서 기독교 신앙은,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듯 공적인 삶에는 전혀 자리가 없다는 의미에서 ‘사적인’ 운동으로 축소되어 버렸다.”(p.121).

“우리는 지금 ‘강요된 유배’의 시간에 와 있다. 이 때에는 ‘탄식하라는 요청과 함께 사는 삶, 성령의 신음에 동참하는 삶은 힘들고 괴로울 수 있다. 하지만 바로 거기서 우리는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한다”(p.101). 

송기태 파트너 (인터서브 부대표, 교회 관계)



인 터 서 브
프렌즈 통권 137호
2020 Fall

우리는 누구 입니까?

인터서브는 1852년부터 아랍과 아시아의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총체적 선교를 통해 복음을 증거해 온 글로벌 선교단체입니다.

비전

예수를 만나 변화된 삶과 공동체

목적 선언문

우리의 목적은 아시아와 아랍 세계의 가장 어려운 사람들 가운데, 전 세계 교회들과의 파트너십과 총체적 선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 입니다.

핵심가치

1. 하나님을 의존함 2. 공동체 3.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4. 파트너십 5. 온전성 6. 총체적 7. 중된 섬김

인터서브 기간지 2020년 가을호 통권 137호

발행인 조샘

편집인 이나래

발행일 2020. 9. 30.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 A-1206

전 화 031-778-7931 팩스 031-728-4777

이메일 interservekorea@gmail.com 홈페이지 interserve.kr

페이스북 페이지 facebook.com/interservekorea

디자인 · 인쇄 피터폴 010-3373-3750

〈인터서브 프렌즈〉에 게재된 글과 사진과 그림은 무단 복제 할 수 없습니다.

experience
Life As Mission

당신의 삶,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 A동-1206호 (금곡동 코오롱트리폴리스) 우)13616 Tel : 031-778-7931

Fax : 031-728-4777 Email : interservekorea@gmail.com H.P : interserve.kr FB : facebook.com/interservekorea